

폴란드, 최근 제조업 현황 및 FDI 유치 실적

1.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표 1> 주요 경제성장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f
GDP(억 달러)	1,902	1,980	2,165	2,523	2,992	..
1인당 GDP(달러)	4,966	5,183	5,668	6,605	7,853	..
경제성장률(%)	1.1	1.4	3.8	5.3	3.2	4.4
환율(Zł/달러)	4.10	4.08	3.89	3.66	3.23	3.10

자료: EIU, Country Report, Mar. 2006.

□ 2006-07년도 경제성장 전망

- 2005년에는 국내투자가 4/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10%나 증가하는 등 전년 하반기의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3.2%의 성장률을 기록함. 2006-07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노동시장 개선,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 및 투자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06년에는 즐로티화의 강세로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나 폴란드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서부유럽 시장의 점진적인 수요 회복과 폴란드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의 견조한 상승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8.3%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은 4.4%의 상승기조 유지 전망
 - 수입실적: 투자증대로 인한 자본재 수입수요 증가로 강세 예상

2. 제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표 2> 산업생산 비중 및 수출실적

산업생산/GDP (2004)		수출실적 (2005)	
농림업	5.1%	기계류·운송설비	349.4억 달러
광공업	25.4%	금속제품	201.3억 달러
건설업	5.6%	잡화	129.6억 달러
무역·수리업	18.9%	식품·가축	77.4억 달러
운송·금융·시장서비스업	30.2%		
공공관리·정부서비스업	14.9%		

자료: EIU, Country Report, Mar. 2006.

□ 제조업 개요

- 1989-91년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제조업의 성장에 기인하였음. 2000-01년에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2002년 중반 이후에는 수출호조로 제조업 경기가 다시 상승국면으로 회복됨. 전통적인 중공업(철강)은 시장 환경변화에 약화되었으나 자동차, 가구 및 건축자재 산업의 생산은 현저한 강세를 나타냄.

□ 자동차 산업

- 1990년대 하반기부터 자동차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승용차 생산량이 국내수요 급증 및 수출 호조로 1994년의 33만 8,000대에서 1999년에는 64만 7,000대에 달함. 그러나 2001-02년의 경기침체로 2002년에는 28만 8,000대 생산에 그쳤으나 2003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2004년에는 자동차생산량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만 2,000대로 늘어남.
- 폴란드는 자동차부품 공장 등 유럽내 자동차 제조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수입 중고차 유입으로 신규 자동차 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수출 증대로 자동차 생산실적을 만회하였음.

- 서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는 Fiat가 수년간 남서지역의 Bielsko-Biala에 근거를 둔 소형차 생산업체로 남아있고, Skoda(독일 Volkswagen의 자회사)와 Renault는 생산기지는 없으나 내수시장에서 양호한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음. Opel/GM도 Katowice 지역의 Silesia에 Gliwice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SEZ)에 greenfield 조립공장을 건설함.

□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 1990년대 들어 폴란드는 OECD(1996), NATO(1999), EU(2004.5)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3-2003년간 누적기준 FDI 유입액이 720억 달러에 달함(Polish Agency for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 PAIiIZ).
 - 2000년도 FDI 최고치 기록: 대규모 민영화사업으로 106억 달러 유치
- 2003년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 FDI 유치실적(PAIiIZ)
 - France Telecom(40억 달러), EBRD(27억 달러), Fiat(18억 달러), Citigroup(13억 달러)
 - 우리기업의 투자실적: 16,921천 달러('03) → 36,070천 달러('04) → 77,326천 달러('05)
- 2001-04년간 주변 체코, 슬로바키아에 대규모 자동차공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외자유치에 비상이 걸렸는데, 외국기업은 폴란드의 열악한 도로시스템, 관료주의 비대화, 임금상승에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냄.
 - Toyota, PSA-Peugeot Citroen 컨소시엄: 2001년 체코에 신규 자동차공장 설립
 - Peugeot Citroen: 2003년 1월 슬로바키아에 신규 자동차공장 투자(7억 유로)
 - Hyundai(KIA): 2004년 3월 슬로바키아에 European Plant 건설
- 2005년도 FDI 순유입액은 4/4분기의 20억 달러 등 연중 75억 달러에 달해 폴란드의 경상수지 적자(48억 달러 추정)를 보전하기에 충분함.
 - 상반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입되어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파리클럽 채무상환에 투입
 -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및 기업의 해외차입 감소로 포트폴리오 투자유입이 위축되면서 외국인투자는 오히려 순유출 기록

<붙임>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사례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oland

Dalkia Termika (France), a unit of energy services company Veolia Environnement, signed a deal in March 2004 to buy 85% of power and heating plant Zespół Elektrociepłowni Poznańskich (ZEP) for Zł 350m. Termika, which bought ZEP in a consortium with Poznańska Energetyka Ciepła (PEC), a local heating company, agreed to invest another Zł 150m to modernise the plant, based in the western city of Poznań. Termika signed another agreement in December 2004 with the Polish Treasury to buy 85% of Zespół Elektrociepłowni Łódź, the country's second-largest heat-and-power generator. The estimated €200m deal had not yet been closed by early April 2005.

Rabobank (Netherlands) gained a 35.3% stake in Bank Gospodarki Żywnościowej (BGZ), an agricultural lender, in December 2004 after buying nearly half of the Polish state-controlled lender's Zł 500m new-share issue and BGZ shares from local co-operative banks. Rabobank said it planned to raise its stake to a majority level during BGZ's initial public offering planned for 2006.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bought the rest of the new issue, gaining a 15% stake in the bank.

Ivax (US) took over Polfa Kutno, a mid-sized Polish generic drug maker, in a Zł 640m buyout bid launched on the Warsaw bourse in December 2004. Polfa is seen as a springboard for Ivax's expansion in central Europe. The US company listed its own shares on the Warsaw exchange afterwards and plans to delist Polfa later in 2005.

France Télécom (France) raised its stake in Telekomunikacja Polska (TPSA), Poland's dominant phone operator, to 47.5% in January 2005 after buying out a 13.57% stake from Kulczyk Holding, a local conglomerate owned by Poland's richest man, Jan Kulczyk. France Télécom and Kulczyk together held 47.5% of TPSA since October 2001. The French operator also placed a bid with the Polish Treasury in February 2005 to buy the last state-held stake of nearly 4% in TPSA, but the Treasury said that the offered price was unsatisfactory. TPSA's total market value stood at Zł 31bn in early March 2005.

Arcelor (Luxembourg), the world's second-largest steelmaker, agreed in February 2005 to buy Huta Warszawa, a steel mill based in Warsaw, from Lucchini, a loss-making Italian firm, in an estimated €100m deal.

선임연구원 조양현(☎02-3779-6663)

E-mail : yhjo@koreaexim.go.kr